

정부조직개편

건설교통부 출범

초대장관에 吳明 前교통부장관 취임

내무부 토목국이 모태가 돼 지난 62년 정식 출범했던 건설부가 정부조직 대폭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새체제로 출범, 초대장관에 吳明 前교통부장관이 취임했다.

본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체제로 출범한 건설교통부의 개편 내용을 게재,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정부조직개편 略史

1948년 정부 수립에 의해 정부조직법 제정으로 14부4처 3위원회의 출범이후 거듭된 통치권력구조의 변동으로 지금까지 44차례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있었다.

그중 대규모 개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 55년 2월 6.25이후 부흥계획의 추진 등 국가 재건을 위한 개편이 처음이었다.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중심제의 정비를 강화했으며 경제개혁의 종합적 기획 조정을 위해 부흥부를 신설하는 등 2원 3처 13부 6청 7외국으로 개편했다.

1961년 5월~63년 12월까지 제3공화국의 출범과정에서 강력한 국가 경제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조직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경제기획원, 감사원, 중앙정보부, 철도청 등과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신설했다. 이때의 2원 3처 13부 6청 7외국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이 현행 정부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1981년 10월에는 「작은 정부」 구현을 목표로 2원 15부 4처 14청 5외국 1위원회로 개편한 행정개혁이 있었다. 기관장의 직급조정, 부기관장의 폐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정비 등 불합리한 조직을 정비하고 기관 상호간에 분산된 기능의 조정 및 보조기관 상호간의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했다.

1989년 12월에는 행정개혁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고 문화부와 공보처를 분리하는 정부조직을 일부 개편했다.

1990년 12월에는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문교부를 교육부로,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하고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격상했으며 내무부 치안분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했다.

1993년 4월 새정부 출범후 2개부처를 통합,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개편해 2원 14부 6처 15청 2외국이 되었다.

1994년 12월 정부와 민자당은 경제기획원

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신설하고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크게 개편했다.

중앙행정기관은 39개(2원 14부 6처 15청 2외국)에서 37개(2원 13부 5처 15청 2외국)으로, 국무위원 수는 22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다.

고위직 공무원도 장관 2명, 차관급 3명, 차관보급 4명, 국장급 23명이 감축된다. 특히 국의 폐지 및 기능조정은 통폐합 부서 외에도 여러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의 신설 외에도 상공자원부는 통상산업부로, 체신부는 정보통신부로,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로 각각 개칭 또는 개편했다.

환경처는 환경부로 확대 승격하고 경제기획원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해 실장이 차관회의 의장을 맡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부, 총무처, 공보처, 조달청 등에서도 국의 통폐합 등 조직이 축소되었다.

건설교통부

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은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중 하나인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관련,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건설부가 갖고 있는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기능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해 도로와 하천-수자원-공항-항만-철도-고속전철 등의 관장부처가 나뉘어 유기적인 협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수송정책실과 건설지원실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건설부 도시국과 주택국의 통합으로 정책기능만 남고 주택개발이나 택지개발과 같은 집행기능은 대부분 지자체로 이관될 전망이다.

건 설 부	교 통 부	건 설 교 통 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건설경제국, 도로국, 건설기술국, 수자원국,		건설지원실
	수송정책실	수송정책실
국토계획국		국토계획국
주택국, 도시국		주택도시국
	안전관리국	토지국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국
	항공국	항공국
	화물유통국	폐지(수송정책실로 흡수)
	관광국	문화체육부 이관
	수도국	수로국
	해난심판원	해난심판원
토지국		토지국

초대장관에 吳明 前교통부장관 취임

건설교통부 초대장관에 취임한 吳明 장관은 12월 24일 취임식을 갖고 「건설, 교통행정에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어 온 정부의 각종 기능과 규제를 과감히 덜어나가겠다」고 밝혔다.

吳明 장관은 「건설부와 교통부는 통합되기 이전에도 경제활동에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국민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교통이나 주택과 같은 막중한 과제를 담당해왔다」면서 「조직통합의 진정한 목적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고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에는 그 무엇보다도 업계의 융합과 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吳明 장관 프로필

吳明 신임 건설교통부장관은 5, 6공화국을 거치며 8년동안 체신부장관과 차관을 지낸 전형적인 기술관료로 과학적인 사고가 뒷받침된 합리적인 업무추진이 강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吳장관은 남들은 당대에 하나도 이루기 힘든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통신혁

명이나 엑스포 사업을 모두 성공리에 마쳐 우리나라 통신혁명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뒷장관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이 조용히 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앞에 나서기 보다는 오히려 남을 편하게 해줌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탁월한 용병술을 발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뒷장관은 최근 전자분야의 탁월한 업적이 평가되어 전자대상 수상자 2인중 1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모언론사가 선정한 「한국을 바꾼 1백인」 중 1인으로, 고려대 행정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전환시대의 행정가 7인」

중 1인으로, 뉴욕 주립대 동창회가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동문 7인」 중 미국 차관보인 갈루치와 함께 선정되기도 했으며,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마무리로 「대전 시민 1호」로 기록되는 명예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교통부장관으로 있으면서 경부고속철도와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관성 있고 매끄럽게 추진한 뒷장관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박사로 매일 아침 출근 전 집부근에서 1시간씩하는 수영과 독서가 취미이며 기독교 집사로 술과 담배를 전혀 못한다.

建設交通部, 95業務計劃 發表

建設交通部(長官 吳明)는 지난 1월 11일 今年 안에 제3차 國土綜合建設計劃을 전면 수정해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경주고속철도를 중심軸으로 國土의 장기적인 靑靑眞을 제시한 「95年 主要業務計劃」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반도가 東北亞의 교통 및 물류 거점지역(據點地域)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항·항만·도로 등 「국가 기간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21세기에 우리 국토가 동북아 교역의 중심이 되도록 「국가기간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의 신국제공항은 정보·교역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춰 세계의 중심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항지역 용지매입과 어업권 2차 보상은 금년 상반기까지, 부지조성 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활주로 등 시설물 공

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도시 교통은 전철과 경전철 등 도시 위주로 개편하고,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통일시대와 세계화에 대비해 전면 재편한다.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는 통일후 경의선·경원선과 연결, 중국과 시베리아의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망으로 구성한다. 이와함께 이미 수립된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을 정비, 남북 7개축중 경부와 서해안축 등 4개축은 북한과의 연결을 추진하고 동해안축 등 2개축은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교통체계 확립

2001년까지 6대 도시의 도시철도망을 현재의 3백16km에서 8백25km로 대폭 확충하기로 하고 금년중에 수도권과 부산권을 중심으로 2백64.7km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철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년중 전동차 8백68량을 늘리고 운행간격을 단축하며